

체류목적에 따른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배경란 · 신용식 · 정미경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

체류목적에 따른 한국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 베트남 출신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배경란 · 신용식 · 정미경
(부산외국어대학교)

《 목 차 》

1. 들어가기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2 선행연구 분석
2. 이론적 배경
 - 2.1 체류목적과 문화교육
 - 2.2 문화적응
3.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4. 연구대상자 소개 및 분석
5. 연구결과 및 결론

<Abstract>

Bae Kyung-Ran · Shin Yong-Shik · Jung Mi-Kyung. 2020. 1. 6.
A multicultural analysis on the stress factors of Acculturation to Korean cultur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stay; Especially focused on Vietnamese Students and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5, 79-108.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main stress factors by which Vietnamese students and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hinder the acculturation process in Korean culture. Main Purposes of stay in Korea are for the *academical* purpose in Korean university, for *general* purposes(esp. inclusive marriage) and for the *occupational* purposes.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academical and the general purposes,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studies with “Narrative Inquiry” of three Vietnamese women. They make various efforts to adapt themselves to Korean society, but they complain of acculturational difficulties due to the limitations of Korean language-centered education and the patriarchal and closed culture of Korean families. Through this narrative inquiry, the study aim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s such and to reveal what is needed to build a multicultural societ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purposes of stay, narrative inquiry, acculturation, stress factors, Vietnamese Students, Vietnamese Married Immigrant Women

1. 들어가기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주는 우리 시대의 생활현상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 연구는 이주 안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류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모색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들, 특히 유학생과 결혼이주여성에 집중하고자 한다. 베트남 이주자를 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비율의 증가 추세 때문이다.

우선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자. 한국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0년대부터 급증한 한국 남성과 아시아계 여성들 간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주가정

확산의 영향이 크다. 아시아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여성이 가장 많고(58.6%), 베트남 여성이 두 번째이며(19%), 그 뒤를 이어 필리핀(5.7%), 일본(4.3%), 캄보디아(2.1%), 몽골(1.1%) 여성 순이다(여성가족부, 2015). 이 중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국내 이민역사가 중국에 비해 짧고 중국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둘째로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의 현황과 증가추세이다. 2016년과 2017년 교육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베트남 출신의 유학생의 증가율이 다른 국가 출신 자들에 비하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04,262명이었으며, 출신국가별 유학생 수는 중국 출신이 38,958명(61.8%) 베트남 3,466명(5.5%), 몽골 2,279명(3.6%), 미국 1,591명(2.5%) 그리고 일본 1,568명(2.5%) 순이었다. 표면상으로는 중국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지만 증가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베트남 유학생의 비율이 눈에 띈다. 2010년에는 1,667명(2.8%)였으나, 2016년에는 전체 중 5.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17년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그 증가율이 더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전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율은 2010년에는 전체의 76.6%, 2013년에는 67.7%, 2016년에는 61.7% 그리고 2017년에는 61.9%를 차지하였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2010년에는 전체의 2.8%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의 3.8%, 2016년에는 5.5% 그리고 2017년에는 전체의 6.5%를 차지하였다. 최근에 베트남 이주자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는 주로 중국 이주자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김미영, 이유아, 송연주 2018:482). 특히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주의 추세를 감안하면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이주자들을 이주의 목적에 따라 간략히 구분하고 각 목적에 따른 문화적응의 어려움들을 분석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분석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이나 대학생활 및 학업 적응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문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동일한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일한 국가 출신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하여 중국 이외의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이 아닌 다른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일본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인 와타나베(2002)와 서선자(2010), 몽골인 유학생을 다룬 한유경(2009)와 최은희(2014)를 찾아볼 수 있다. 와타나베(2002)는 서울 소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 적응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 적응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문화 적응 과정에 유의하여 교육할 것과, 학습자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에 집중하여 그 특징을 밝힌 초기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서선자(2010)은 대구, 경북, 부산 지역의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일본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인 유학생의 성별, 체류 기간, 체류 목적과 같은 특성이 문화 적응 유형과 대학생활 적응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의 유학생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유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유경(2009)은 서울 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 문화 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밝히고 그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재한 몽골 유학생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과 거주 형태를 개선하는 것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또한 몽골인 유학생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에 따라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은희(2014)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몽골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에서 그들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양상과 대처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크게 학업적·경제적·심리적·사회문화적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유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서 느끼는 보람과 기대에 대해서도 탐구하여 입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몽골 대학원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유학생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선택하고 연구자 한 사람이 아닌 분석 팀에서 다각적인 자료 분석을 시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상의 일본과 몽골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모두 각 연구 대상이 지닌 특수성을 전제로 하면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한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표본 집단의 일반화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내부에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특성보다는 일반화를 중요시하여 공통 정책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들 연구마다 의의가 있다. 한편, 출신 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유학생을 다룬 연구에는 권양이(2008), 박세원(2012), 민진영(2013),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이유경

(2014) 등이 있다. 권양이(2008)은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적응 과정에 주목하였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이들의 초기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3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학생의 입장에서 적응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세원(2012)은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및 한국사회 적응 경험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및 한국생활 적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학본부를 포함하여 한국인 학생과 당사자인 외국인 유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북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내러티브를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서술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민진영(2013)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경험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8명의 유학생에 대한 면담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자료를 수집한 뒤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학업 적응에 초점을 두고 학업 적응 경험의 의미와 그 촉진 요인 및 저해 요인 등을 나누어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유학생의 국적과 모국어 배경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고려되지 않았다.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는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 8명에 대한 심층 면담을 활용하여 질적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유경(2014)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화 인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심층 면담을 병행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들이 ‘사회적 적응’, ‘자아의식’, ‘언어적 한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 또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폭넓은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가 양과 질 모두 성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 공유하려는 노력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체류목적과 문화교육

문화교육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방법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 방대한 대상이다. 기존의 문화교육은 대부분 한국어 수준 및 학습의 단계에 따라 구획짓고 구체적인 항목을 점검 및 배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에 조항록은 문화교육을 다룬 학술연구 논문들을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전수조사하기도 하였다. 창간호 1989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통해 연구한 결과 문화교육 관련한 연구는 전체의 9%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조항록 2015). 그래서 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한국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언어로 소통할 때에 한국의 문화의 의미, 소통의 맥락을 해석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 곧 문화 문식성(Cultural Literacy)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언어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문화교육 곧 문화적인 문식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의 필요성을 기초로 하여 체류목적에 따른 문화교육의 지향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체류목적은 크게 일반목적, 학문목적 그리고 직업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일반목적 체류는 결혼 및 한국에서의 거주를 위한 체류 등을 포함한다. 이 목적과 관련한 연구가 가장 방대하며,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다. 정은주(2016: 23-24)

는 다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한국생활에 적응해야만 하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의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분 아니라, 생활적응이라는 관점에서 문화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주월랑·양명희(2011)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비교적 초급 혹은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었으며, 이것도 생활문화에 대한 비중과 의존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이 증가하고 한국어 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수록 생활문화, 사회문화, 정신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둘째, 학문목적의 체류가 있다. 학문목적의 체류 외국인들을 다룬 연구들은 비교적 학문적 글쓰기와 읽기에 집중되어 있다. 박지순(2017), 박현진(2017), 전미화(2017), 심혜령·박나리(2015), 손다정·장미정(2013), 엄혜경(2013), 이영옥(2013), 윤정아(2012), 김은정(2012), 이준호(2011) 등의 연구는 동일하게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쓰기과 읽기를 향상시켜주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글들이다. 그 외에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의 극히 일부가 말하기 및 토론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교육”을 다룬 글은 황설운(2013)과 유현정(2017, 201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학문적 글쓰기와 읽기 교육에 집중된 교육과정은 유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한국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와 관련한 실제적인 예는 아래에서 언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목적의 체류가 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의 60%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근로자이며, 그 이외에는 전문 근로자로서 교육, 무역·경영, 연구원등이다. 단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목적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 직장생활 및 현장업무에 관련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작업장에서의 업무생활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전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내용, 비즈니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수정(2008:105)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모든 영역에서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강조하는 일반 목적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는 달리,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은 “한국인 동료 직원들과의 상호작용”의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기에 “한국어 전 영역에서의 정확성과 유창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체류와 학문목적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탐구를 실시하여 그들이 겪고 있는 한국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원인 등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간략히 모색하고자 했다.

2.2 문화적응

문화 적응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Redfield & Herskovits(1936:149)은 “문화적응이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한쪽이나 양쪽의 본래의 문화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고 인용되는 문화 적응 이론으로 Berry(1980; 1986; 1990)을 들 수 있다. Berry는 “문화적응을 둘 이상의 문화 집단이나 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화적, 심리적 변화의 과정(Berry, 2005:698)”이라고 정의하였다. 곧 문화적응은 자문화를 가진 개인과 집단들이 타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주류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자문화에 대한 태도와 타문화에 대한 수용 자세에 따라 문화 적응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자문화를 고수하지 않으며 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화’ (Integration), 자문화에 집착하며 타문화와의 교류를 회피하는 ‘분리’ (Seperation), 자문화를 유지하면서도 타문화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통합’ (Assimilatioin, 자문화 고수와 타문화 수용 모두에 소극적인 ‘주변화’ (Marginalization)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 적응 유형은 문화 간 접촉과 교류를 통해 개인과 집단이 겪는 심리적인 저항과 갈등, 극복과 수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민이나 국제결혼, 유학을 통해 타문화에 편입된 개인과 집단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의 교류를 경험하기보다는 ‘새로운 주류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 문화 적응이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Berry 1990; 하정희 2008:475 재인용). 따라서 언어, 생활 습관, 의사소통 방식, 가치관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는 바로 이러한 대응 방식을 유형화한 것이다. 분리와 주변화는 주류 문화에 대한 적응에 실패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환경이 주는 불안과 긴장으로 인한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저해하고 학습 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한편, 타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자문화의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주자 입장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 현지인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자문화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타문화로의 동화를 억제하며 기존 문화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유정원 2013:247). 문화 간 갈등과 충돌은 접촉과 교류가 부족한 상황보다는 교류가 일상화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들이 국내 대학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유학이 대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들의 문화 적응 양상을 살펴 적절한 대응 방식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3. 연구방법: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접근법 중 하나로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다. Clandinin 과 Connelly 는 Dewey의 경험에 관한 이론에서 영향을 받아, 주로 교사 연구 분야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후 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사용되거나 영향을 끼쳤다. 본 절에서는 연구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로 Clandinin과Connelly(2000/2007), Creswell(2013/2015)에서 다룬 논의들을 중심으로 내러티브 탐구란 무엇이며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는 연구자, 즉 내러티브 연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러티브 탐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내러티브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또는 서사 등으로 번역하거나 그대로 내러티브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 분야나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흔히 내러티브는 이야기(story)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곤 하는데, 질적 연구자들은 보통 이 둘을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Clandinin과 Connelly(1990)에 의하면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일화이고, ‘내러티브’는 보편성을 띠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있으며 구조화가 가능한 형태의 의미 있는 사건이나 발화를 뜻한다(한송화 2014:4 재인용). 그러므로 단일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연구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또한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inquiry intonnarrative)’와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들에게 내러티브는 현상이자 연구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내러티브란 연구 대상이 되는 경험뿐만 아니라 탐구 방식까지 포함한 것이며, 내러티브 탐구란 인간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이자 그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자는 개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 그 이야기들은 연구자와 개인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와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 수집 방법인 면담 이외에도 관찰, 문서,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된 이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Riessman(2008)은 세 가지 유형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개인이 말한 이야기에서 주제를 찾는 ‘주제분석’이며, 두 번째는 이야기의 구조, 즉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는 ‘구조 분석’, 세 번째는 이야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대화/행위 분석’이다. 이밖에도 내러티브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분석 전략이 사용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나 내러티브 연구자는 단순히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며, 이야기를 탐색하고 듣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의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형식이며, 연구자는 누군가의 경험을 경험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2007:156). 또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기, 삶의 이야기를 말하기, 삶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삶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가기의 순환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자가 아님을 뜻한다. 연구자 역시 이 순환적 과정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인 베트남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은 학습과 문화 적응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며, 연구자는 그 이야기를 수집하고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경험 속에 담긴 의미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로 Clandinin과 Connelly(2000)은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틀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이라는 은유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Dewey의 경험 이론을 수용하여 그가 사용한 경험의 상호작용, 계속성, 상황과 같은 개념에 바탕을 두고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발전시킨 것이다.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의 첫 번째 차원은 시간성(temporality)이고, 두 번째 차원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며, 세 번째 차원은 장소(place)이다. 먼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그 안에 시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시간의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이것은 Dewey가 말한 경험의 계속성과 연관된다. 두 번째,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것은 Dewey가 말한 경험의 상호작용(interaction)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과 그 개인의 사회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균형적인 관계를 고려한다. 여기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도 제외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장소는 Dewey가 말한 상황(situation) 개념과 연관되는데, 내러티브 탐구는 특정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그 장소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로서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자는 이러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늘 시간, 장소,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한가운데에 있게 된다. 이 은유적 개념을 통해 연구자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공간 속에서 연구자는 혼자가 아니며 연구 참여자와 함께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탐구이며, 이 공간에서 연구자는 현장과 현장 텍스트 그리고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게 된다. 내러티브 연구자가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곧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를 나타낸다. Clandinin

과 Connelly(2000)은 내러티브 탐구가 진행되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단계, 두 번째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단계, 세 번째는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 네 번째는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 단계, 다섯 번째는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단계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실제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할 때 이 다섯 가지 절차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단계는 생략하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다시 현장 텍스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단계는 상호보완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섯 단계의 절차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4. 연구대상자 소개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이주를 학문목적 이주자와 일반목적 이주자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일반목적 이주자 중에 상호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부재를 겪고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여 총 세 인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1 학문목적 이주자

베트남 국적을 가진 28세의 유학생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구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을 하시는 중산층의 경제수준을 가진 환경이었고, 한국에 오기 전 베트남에서 한국어

과를 졸업하였고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대상자가 한국어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2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으며 연구대상자의 유학 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겪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하여 진솔한 내용을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본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지만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데 필요한 문법, 쓰기 등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로 인해 유학중의 수업참여 시 어려움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제 생각에는 대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근데 아마 말하기.. 그런 능력에 많이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구 쪽에 더 강하니까, 문법이나 쓰거나.. 여기 와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말하기, 좀 많이 연습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인 선생님은 있었어요. 어... 있긴 있는데 수업할 때 조금, 조금만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수업 끝난 후에 같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또한, 연구 대상자는 수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 중의 한 가지는 학교 밖에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문화원, 한베 문화교류센터 아니면 KF(한국국제교류재단)같은 단체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학교하고 상관없이 그런 게 있으면 알아서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저... 한국문화원...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한베 문화교류센터에서 봉사활동 좀 했고 말하기 대회 같은 거 좀 참여했어요.”

“베트남에 있었을 때 한국페스티벌이나 한국, 음...간담회 같은 거 많았어요. 한국페스티벌에 갔으면 한국가수를 만날 수도 있고 한국노래들을 수 있어요. 콘서트처럼. 한국유학간담회나 다른 한국간담회,

한국어 간담회 같은 걸 가면 한국 사람 만날 수도 있고, 한국대학교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대상자가 유학생생활을 하면서 한국문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학 오기 전에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화적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따른 문화충격이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과 겪는 문화충돌도 이들의 유학생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한국에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랑 문화충격 있는 거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외국인이 8명이 같이 생활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들어가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안되잖아요. 여러 나라, 뭐 중국, 태국, 베트남 여러사람 같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을 서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인데 그래도 싸워요.”

베트남인 유학생들은 비록 유학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유학 전에 바라던 대로 새로운 환경에서 학습을 경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해 이해하며 유학 후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유학생생활의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유학생생활을 통해 자립심을 키우고 삶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성격이 변하는 등 개인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인 유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2 일반목적 이주자: 자녀교육

연구자는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베트남 건너에서 온 팜000씨(38세)와 2-3차례 지속적으로 만나 면담을 실시했다. 대상자

는 54세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6살 된 딸아이가 한 명 있다. 길거리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남편과 6년 전 결혼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남편은 재혼으로 전부인과는 이혼을 했으며, 미혼인 28살 딸과 26살 된 아들이 있다. 입국초기에는 전처의 두 자녀들과 함께 살았는데 4년 전부터 두 자녀 모두 타지에 나가 있어 지금은 본인의 딸과 남편, 3명이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전처 자녀들은 일 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집에 오기도 하고 대상자와 자주 연락은 하지 않지만 남편과는 가끔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는 것 같다고 한다. 남편 형제들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대상자가 베트남 음식이나 김치 등을 만들 때, 기념일 등에 대상자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남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일요일마다 문병 수준의 방문을 하고 있다. 대상자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며 본인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 본국에서 귀화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줄 만한 가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한다. 실제 고향마을에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호치민시까지의 거리가 버스로 5시간 이상 걸려서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상자의 성장배경은 3남 1녀 중 셋째로, 큰 차들이 다니는 대로 변에서 쌀국수라든가 간식 등의 장사를 하는 부모님과 위로 오빠 두 명, 밑으로 남동생이 있다. 부모님의 외동딸로 성장했으며 어릴 때부터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도와서 음식들을 팔기도 하고 숲속의 고무나무에서 고무원료를 채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 큰오빠는 결혼을 안 했고 작은 오빠는 현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고향동네와 가까운 곳에서 회사를 다니며 조카 2명이 있다고 한다. 남동생도 역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조카 1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이 동생가족들과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가끔씩 조카에게 옷이나 선물을 사서 보내주기도 한다.

대상자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고 아이

가 2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틈틈이 남편 일을 도왔으며 심지어는 입국해서 2일 만에 남편이 일하는 노점상에서 남편 일을 거들었다고 한다. 아이가 3살 때부터는 맛사지샵에서 전신 맛사지를 배워 최근까지 일을 하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베트남에 상당히 넓은 토지를 구입하여 고무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일을 할 때는 한 달 생활비가 15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정도로 알뜰하게 생활하였는데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지금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든다며 2달 후부터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남편과 함께 돈을 빨리 벌어서 지금의 전셋집을 정리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보통의 베트남 출신 여성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으로 아이의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집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아이와 함께 놀아 주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가 5살까지는 정부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에 보내다가 취학 전 2년은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아이의 교육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남편을 설득하여 교육비 부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서 가장 유명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또 며칠 전에는 연구자와 가까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 대출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종류의 그림동화책을 대출 받아 아이와 함께 읽고 있다. 대상자는 이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상자는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못지않게 키우려는 의욕이 상당히 컸다. 그래서 다른 한국인 부모처럼 부모 및 자녀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본 대상자는 자녀가 재능을 지닌 존재, 독립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실제로 대상자의 자녀는 그림, 언어, 문학적 재능을 보이며 6세 나이보다 뛰어난 그리기 능력과 한국어로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는 표현들과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는 자녀가 지닌 각각의 다양한 재주와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자녀의 그림을 사진으로 남겨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하거나 상장들을 거실 벽 한 가운데 붙여 놓는가 하면, 유치원에서 만든 자녀의 조형물들을 가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면서 자녀의 성취를 격려하고 뿌듯해했다.

그리고 이 대상자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장래희망에 대해서는 부모의 기대나 욕심보다는 자녀의 흥미, 의지를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은이가 발레를 배우고 싶어해요. 선생님 발레 학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며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자녀교육에서 다른 나라 출신 엄마들에 비해 아이의 욕구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여 진다.

대상자 : 어... 어... (우리 아이는) 집에서 엄마한테...(잘 해요. 우리는 집에서도) 교육... 잘해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자 : 엄마에게 교육을 잘 받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거예요.

대상자 : 잘 받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거예요.

또 이 대상자는 한국 부모들이 자식을 과잉보호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과도하게 도와주는 것을 비판했다. 대상자는 실제로 육아 초기에 아이에게 남편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강압적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이를 대하는 남편의 엄격한 태도가 가정교육을 주도하다 보니 대상자 역시도 아이에게 가끔씩 그렇게 대한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사소한 것에 대한 부모의 간섭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자 : 음 ...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엄격하게 대하고 계시다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대상자 : 어릴 때 아빠(가) 교육, 교육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너무 제가 닮았어요. (저도 남편하

고) 진짜 너무 닳아(가)요.

연구자 :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교육하고 싶어요?

대상자 : (아니요) 아빠(도) 교육(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딸한테 (딸이 원하는 데로) 따라요. 우리 하은이가 가정교육 잘 받으면, 가정교육 잘 받으면 밖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낼거예요

연구자 : 그런 마음으로 하은이 교육하고 싶으신 거죠?

대상자 : 네

연구자 : 그래요. 잘 할꺼예요.

이 대상자는 자신이 어릴 때 부모가 모두 일하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모 도움 없이 지낸 것이 일상이었기에, 하은이도 씻기, 옷 갈아입기, 밥 먹기 등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는 자신감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대상자는 아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결국 대상자가 자녀에게 ‘가정교육을 잘 받’ 도록 한다는 것은 자녀가 독립적으로 건강히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대상자는 한국 가정의 자녀교육은 이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지금과 같은 교육관으로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시면 된다고 격려했다.

대상자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 부모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생활습관 지도하기’ 를 부모역할로 여겼고 청결, 절약 등 기본생활 습관을 강조했다. 자녀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대상자는 자녀의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여겼다. 가정에서 자녀의 인성을 위해 효도를 강조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의 가치도 가르치고자 노력했다. 또한 대상자는 자녀의 학습지도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한글공부와 기초 셈하기에 관

심이 높고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노력하지만, 본인의 한국어 실력의 부족, 자녀의 집중력 부족 등, 바쁜 일상 때문에 직접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는 것은 어려워했다.

4.3 일반목적 이주자: 가정환경

김해시 서상동에 위치해 있는 라함 경남이주민문화센터에서만남 여성결혼이민자 탄00(34)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는 15년 쯤이며, 결혼한 지는 14년이 흘렀으며, 슬하에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탄00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54세)은 둘째(딸)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시모는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한다. 특히 시모는 탄00가 바깥출입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여 집안 살림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탄00는 결혼하여 낳은 세 자녀가 있지만, 남편의 소개로 1년 반 정도 김치공장에 다닌 것 외에는 14년의 결혼생활 동안 이렇다 할 만한 한국의 문화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오랜 한국생활로 인하여 언어적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여전히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가정문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도 베트남 일반대중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 왔고,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적극적인 여성참여 요구에 따라 베트남의 여성들은 직접 전쟁에 가담하는 한편 후방에서는 생산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베트남 여성이 가부장성에 길들여진 한국 남편의 의식과 태도를 이해하기는 힘들며 그것에 반발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베트남과는 달리 가사와 자녀양육은 늘 아내의 몫이었고, 베트남에서 보았던 텔레비전 속의 자상하고 멋진 한국남성은 온데간데없고 불만이 커졌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

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 애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대상자: 정말 아끼면서 키웠어요. [...]

연구자: 그래도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텐데.

대상자: 월 30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했어요.

연구자: 30만원이요?

대상자: 네, 한 달에 30만원 밖에 안 줬어요. 시어머니가 그 이상 돈을 안 줬어요. [...] 애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돈 많이 쓴다고, ‘아껴 써야지’ 하면서 돈 안 주기도 하고 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런 말 안 하고 해서 남편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혼자 너무 억울하고 슬펐지만 참고 살았어요.

연구자: 왜 그랬을까요?

대상자: 계속 밖에도 안 나왔어요. 맨날 청소만 하고 집안일만 하고 밖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남편들은 국내에서 신붓감을 찾을 수 없어서 국제결혼을 선택한 농촌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국제결혼을 선택한 만큼 가사노동을 기피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더불어 시어머니가 함께 살면서 아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제지시키기도 하여 남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눈치를 보면서 가부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 그랬군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던데 그건 어땠나요?

대상자: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연구자: 그럼 정식직원 아닌가요?

대상자: 정식직원이 되면 4대 보험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 보험은 보험대로 빠지니깐 일부러 정식직원 안 한다고 했어요.

연구자: 그럼, 지금도 지금 계속 일을 다니고 있나요?

대상자: 아뇨 지금은 그만뒀어요. 애를 키우다 보니깐 애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게 너무 싫어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정부

에서 돈 주는 것도 있어서요.

연구자: 그럼 최저 생계비랑 아이 양육 때문에 그만두신거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려구요?

대상자: 일을 나가야 하는데 정식 직원이 아닌 곳으로 일을 가려고 해요. 왜냐면 정식 직원으로 일을 하면 아이들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연구자: 그럼 남편은 좀 안 도와주나요?

대상자: 남편은 첫째 애 키우라고는 돈을 안 줬고 지금은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활동비나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

연구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요?

대상자: 제가 바깥에 나간다면,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게 하기만 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면 댄날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나가려고 하면 등 뒤에서 욕하고 그랬어요. 나갈 수는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를 돈 주고 사왔다’고, ‘돈 주고 사왔으니깐 어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연구자: 그럼 바라는 것이 어떻게 있나요?

대상자: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요.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

이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문제는 베트남보다 강하게 남아있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유입된 여성결혼이민자는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남편에게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게 되면 당연히 봉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넘겨주려 한다. 그러나 한국의 생활방식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며느리를 맞이하여 봉양받기는커녕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히려 수발까지 해야 하니 사사건건 마음에 드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5. 연구결과 및 결론

위에서 소개된 베트남 출신의 한국 체류자 세 명의 사례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적용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중에서 내러티브 탐구였다.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문화의 충돌과 긴장의 맥락 속에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면밀히 살피고자 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한 개인이 겪은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 그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화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1) 첫 번째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인 유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학습 경험과 유학 중 문화 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의 유학생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위의 대상자는 한국에 유학생의 신분 곧 연구자의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한국문화 자체에 대한 자신의 전이해와 실제적인 한국문화 사이의 이질감을 제거해야 한다는 부담 뿐 아니라, 한국 내의 다른 유학생들과의 관계적 긴장 역시도 해소해야만 한다는 개인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유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은 지나칠 정도로 학문적 글쓰기와 읽기에 치중되어 있기에 이들의 한국문화에의 적응에 견인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제도적·물질적 지원에 앞서 베트남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이 한국문화와 그리고 타국 출신의 유학생들의 문화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겪는 문화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재학 중인 베트남인 유학생에게는 한국인과의 교류프로그램과

유학생들에 대한 상담 기회를 자주 제공하고, 전공이나 학과별로 학업 수행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거나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마지막으로 졸업 후의 진로와 관련하여 유학생들의 취업, 진학, 귀국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2) 두 번째 대상자(일반목적 체류자 - 자녀교육)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면담을 통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요구뿐 아니라 지도사의 업무적인 역할 등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대상자가 자녀교육에 대한 이상과 목표와는 달리 이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으며 겪을 수 있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대상자는 다른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에 비하여 자립심이 강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의가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가정의 분위기,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 등이 자녀교육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자녀교육 중 부모역할의 기본적인 내용인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부모역할은 잘 해내고 있었으나, 상담자 되어주기, 생활습관 지도하기, 인성 교육하기, 학업 지원하기와 같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역할에서는 어머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문화적 차이, 시간의 부족함 등의 어려움이 더해져 부모역할 수행이 쉽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대상자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지만 한국사회의 배타적인 시선, 결혼이민여성의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가 무시되는 점, 어머니의 문화가 억압되거나 배제되는 분위기와 언어적 한계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이들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적 요인들로부터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사회가 나서서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동안 정부 각 부처별 중첩된 정책, 지속적이지 못한 정책, 효과성 입증을 위한 평가과정 없는 지원사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추진된 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녀들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 시대를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와 자녀들의 발달과 상황에 적합한 정책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교육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3) 세 번째 대상자의 경우는 다수의 다문화 가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어려움이었다. 결혼생활 경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즉 문화능력 신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문화에 대한 자기비판적 성찰이 동시에 요청된다. 부계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와는 달리 베트남에서는 항상 가사노동을 분담한다. 그렇기에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에 대한 종속성을 벗어나려고 애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한국과 베트남은 차이를 보인다. 베트남과 한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다. 지리적 조건에 따른 기후차이, 가옥구조의 차이로 청소방식이 많이 다르며 의류의 재질도 달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세탁이나 취급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른 가족들보다는 이런 배경을 아는 남편들도 생활하면서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문제 삼거나 아내가 게으르다고 매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00 가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는 듯 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참견과 일방적인 걱정은 베트남 문화에 대한 몰이해 혹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

한,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초점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실제로도 가족 단위 서비스 공급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연구 기간이 짧고 연구대상자가 한 명으로 유학 전·후 경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사례자의 수를 늘리고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유학 전 학습 경험과 유학 초기 적응 과정 및 유학 후에 나타난 변화까지 폭넓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양이(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교육학회, pp.301-333.
- 김은정(2012), 학문목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글쓰기 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3호, 541-568.
- 민진영(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숙·김영순·홍유나(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및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40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109-140.
- 박세원(2012),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순(201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적 문식성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112-118.
- 박현진(2017),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에서의 읽기 전 활동에

- 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36, 101-129.
- 서선자(2010), 「제한 일본인 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다정·장미정(2013), 쓰기 지식을 중심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연구 경향, <어문논집> 제56권, 431-457.
- 심혜령·박나리(2015),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인용 구문’ 교육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학술대회>, 117-123.
- 엄혜경(2013), KWL 차트 활용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수 방안, <동악어문학> 제60권, 343-367.
- 와타나베 요시아스(200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영옥(2013), 한국어교육학 : 학문 목적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항의 개발 방향 모색, <새국어교육> 제97권, 291-326.
- 이유경(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제55호, 이중언어학회, pp.249-284.
- 유수정(2008), 요구분석을 통한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연구(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정(201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한국문화 교육 내용 분석 - 고급 단계 한국어 교재와 학부 교양 한국어 교재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제65권, 281-314.
- 유현정(2018), 학문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적 문식성 연구, <어문연구>, 369-393.
- 윤정아(2012), 한국어교육 :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수요목 구성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3권, 537-564.
- 이준호(2011),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은 후 쓰기 과제" 연구, <한국어교육> 제22권 제4호, 83-108.
- 전미화(2017),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락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166-185.
- 정은주(201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 인스

- 턴트 메신저 활용을 중심으로(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항록(2015). 한국어 교육 정책과 문화 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제26권 제4호, 389-415.
- 주월량·양명희 (2011)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언어문화학, 8:1, 175-203
- 최은희(2014), 「재한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 한송화(2014), 「한국어교육에서의 내러티브 연구 동향과 상호 소통의 한국어교육 실천 가능성」, 『언어사실과 관점』 제33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pp.3-32.
- 한유경(2009), 「재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몽골 유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설운(2013),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항목 선정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1호, 253-273.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소경희 외 역(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조흥식 외 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제3판)』, 서울: 학지사.
- Redfiled, R, Linton, R, & Herskovits, M. (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49, 700-708.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필자 소개

성 명 : 배경란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화번호 : 010-9317-7380
전자우편 : pretty4y@hanmail.net

성 명 : 신용식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화번호 : 010-8965-4008
전자우편 : sinysik0292@naver.com

성 명 : 정미경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화번호 : 010-8636-1667
전자우편 : ranche3118@hanmail.net

투고일: 2020. 1. 6 / 심사일: 2020. 2. 3 / 심사완료일: 2020. 2. 10